

한국불교 세계화 본격 시동

조계종 대표단 美 순방 원만회향

해외교구 설립·국제구호사업 체결...

“한국불교, 지구촌 평화 디딤돌 구축”

총무원장 스님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조계종 대표단이 10박11일간의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대표단, 그리고 한국사찰 음식의 날 팀 등 40여명은 지난 9월 24일 오전4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관련기사 4·5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대표단은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라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세계평화와 종교간 갈등 해소, 최극민국 아동구호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유네스코에 아이티 구호기금 40만 달러를 전달하고, 향후 양측이 세계아동구호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제기구와의 이같은 연대는 한국불교가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회동

세계종교포럼 개최 뜻 전달

뉴욕대법회 교민불자 ‘성향’

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9월16일 오후6시(현지시간) JFK 공항을 통해 뉴욕에 도착한 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9시 뉴욕사원연합회(회장 휘광스님)의 환영만찬 참석으로 뉴욕 일정을 시작했다. 뉴욕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종교간 교류로 지구촌 갈등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9월 19일 오후4시 플러싱 지역의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대법회는 교민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뉴욕과 LA법회에서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서 포교해온 스님과 불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그동안 방목(放牧) 상태로 방치해온 역대 총무원을 대신해 총무원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총

무원장 스님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불교 세계화의 속원 불사를 종단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이번 미국 순방에서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간담회가 LA와 뉴욕에서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됐다. 두 번의 간담회는 총무원장 스님과 공동대표단장 혜경스님(사회부장), 해외특별교구 총책특보 무애스님이 현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 모두 해외교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종단이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 순방의 대미(大尾)는 9월20일 뉴욕 맨해튼 소호의 스카이라이프에서 열린 ‘한국 사찰음식의 날’ 행사였다. 1700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사찰음식이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NY1의 뉴스 앵커인 비비안 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블룸버그 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월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스편집장, NYC-TV의 요리프로그램 진행자 켈리 최 등 뉴욕커 5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총무원장 스님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 유순택 여사, 김영목 뉴욕총영사, 조계종 대표단도 함께 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찰 음식은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생명을 죽여 자신의 육신을 보존하거나 식탐을 위해 먹지 않는 특징이 있다”면서 “한국의 사찰음식을 통해 이 음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찰하여, 모든 존재가 이어져 있음을 깨달아 지구촌이 하나의 꽃으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10박11일간의 총무원장 스님과 조계종 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불

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사찰 음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은 사찰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를 현실화시키는 후속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총무행정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는 단계를 밟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LA=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지눌스님 열반 800주기 국제학술대회

7~8일 서울 법련사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스님)이 보조국사 지눌스님(1158~1210)의 열반 800주기를 맞아 오는 7일과 8일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조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조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다수의 국내외 석학들이 나서 고려시대 선종을 크게 일으킨 스님의 사상사적 업적에 대해 고찰한다.

기조발표에서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스님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보조지눌 스님’을, 강건기

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오늘의 세계, 왜 보조사상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한국불교사에서의 스님의 위상과 현대적응에 관해 살핀다. 이어 이를 동안 총 6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주제발표에선 13명의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한 스님의 선교일치 사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 성원스님, 동방대학원대 자연치유학과 교수 인경스님, 신규택 연세대 철학과 교수, 니시무라 에신 일본 하나조대 교수, 요시즈 요시히데 고마자와대 교수, 웨이따오이 중국 사회과학원 교

수, 양영원 중국불교연구소 교수, 광성 홍종대 불교학센터 교수 등이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해도 서흥에서 태어난 지눌스님은 8세에 출가, 25세에 승과에 급제했다. <육조단경>을 읽고 크게 깨쳤으며 선(禪)으로 체(體)를 삼고, 교(教)로 용(用)을 삼아 선교 양종의 통합을 지향했다. 특히 한국 선불교의 가장 가운데 하 나인 돈오점수(頓悟漸修)의 기반을 닦았으며 저술로는 <진심직설> <구도·평화·종교의 삶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현대인들의 정신적 표상으로 삼고자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사명스님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

9~10일 밀양 표충사

올해 사명스님의 임적 400주기를 맞아 종단차원의 대규모 추모행사가 거행된다.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밀양 표충사 일대에서 추모대제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12면

이번 추모제는 ‘나라구하기’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사명스님이 임적(臨寂) 당시 발취한 구국애민사상을 오늘에 되살리고, 그동안 평가절

하되거나 폄하돼 왔던 사명스님의 수행자로서의 면모와 의승병들의 업적을 복원해 임진란 역사를 재정립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추모제는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9일과 10일 본행사로 이어지게 된다. 행사 취지에 맞춰 추모·계승·발전의 장이라는 테마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일정으로 짜여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종단차원에서 추진된다는데 의미가 크다. 증명에 법전 중정예하를 위시해, 봉행위원장은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직위원

장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이 맡았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봉행위원으로 활동한다.

추모대제봉행위 집행위원장 재경스님(밀양 표충사 주지)은 “추모대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다양한 추모행사와 문화행사로 사명성사의 애민·구국·구도·평화·종교의 삶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현대인들의 정신적 표상으로 삼고자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社 告

우학스님과 함께하는 네팔 자비성지순례

- 행사명 : 無—우학스님과 함께하는 네팔 자비성지순례
- 일 정 : 10월25일~10월29일(4박 5일)
- 주 최 :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설 NGO사단법인 ‘참 좋은인연 B.U.D’
- 주 관 : 불교신문사
- 진 행 : 명보국제항공(주)
- 동참금 : 170만원
- 문 의 : (053)474-8228 한국불교대학 대 관음사 (종무실장 권우돈)
(02)733-1604 불교신문사 010-3686-1582 (전략기획팀장 여태동)



THE 2nd BONGNYEONGSA TEMPLE FOOD FESTIVAL

2010 제2차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경기도 수원시 봉녕사
2010. 10. 16(SAT) _ 17(SUN)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www.bongnyeongsa.org/031-256-4127)
주관 봉녕사승가대학, 금강율원, 선우회, 거사림회, 관음회, 승만회
후원 경기도

자 연 의 맛의 마음
나눔의 마음

TASTE OF NATURE HEART OF SHARING

주요행사

- 사찰음식 경연대회
- 사찰길치 전시와 역대 큰스님 공양상 재연
- 사찰음식 강의: 사찰음식과 환경문제(우관스님), 사찰음식의 변천사(정관스님), 사찰음식의 대중화방안(대인스님), 부처님 지혜로 바라보는 선식문화(선재스님)
- 봉녕사 스님들의 다도시연과 탁발순례 재현, 첫시발 강의
-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반계이, 연꽃초 만들기과 바자회장터
- 바라길 공연 한마당(17일 18:00, 사회 김병조)